

한자 ‘기(氣)’로 끝난 단어들의 조어법 분석

배주채
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어학 전공
cukbjc@catholic.ac.kr

- I. 머리말
 - II. 자료
 - III. 분석
 - IV. 맺음말
-

본 연구는 2018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머리말

한국어의 한자어는 조어법상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한문문법에 의한 한자어와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한자어가 그것이다. 둘의 기본적인 차이는 조어요소의 차이이다. 전자의 조어요소는 한자형태소인 반면 후자의 조어요소는 단어, 어근, 접사이다. 예를 들어 '화병(花瓶)'은 한자형태소 '화(花)'와 한자형태소 '병(瓶)'이 한문문법에 따라 결합한 단어이다. 여기서 '화(花), 병(瓶)'은 한국어 조어법에서의 단어, 어근, 접사 등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한편 '화병(火病)'은 단어 '화(火)'와 단어 '병(病)'이 한국어 조어법에 따라 결합한 단어이다.¹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한자어는 조어과정에서 한국어 음운현상을 겪는다. '화병(火病)'의 발음 [화:뽕]은 한국어 음운현상인 경음화가 적용된 결과이다. '화병(火病)'과 뜻이 비슷한 단어 '울화병(鬱火病)'도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한자어이다. '울화병'은 단어 '울화(鬱火)'와 단어 '병(病)'이 한국어 조어법에 따라 결합하면서 경음화가 일어나 [울화뽕]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화병(火病)'과 '울화병(鬱火病)'은 '단어+단어'라는 동일한 조어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한문문법에 의해 형성된 '화병(花瓶)'은 '한자형태소+한자형태소'라는 조어구조를 가지고 있다. '화병(花瓶)'의 형성에서는 '화병(火病), 울화병(鬱火病)' 같은 단어의 형성에서 일어나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²

-
- 1 이상의 내용은 김창섭,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37(2001), 177-195쪽에서 한자어 조어법에 대해 체계화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특히 '어근'의 개념은 김창섭(2001), 위의 논문에서의 정의, "단어를 구성하는 非接辭 形態素들 가운데 언제나 의존형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에 따른다. 달리 말해, 단어를 형성하는 형태소 가운데 단어나 접사가 아닌 것을 '어근'으로 부른다.
 - 2 한자어의 조어과정에서 경음화가 적용되는 양상은 배주채, 『한국어의 발음』(삼

위의 세 단어 ‘화병(花瓶), 화병(火病), 울화병(鬱火病)’에 대한 국어사전의 조어구조 표시는 다음과 같다.³

『표준국어대사전』

화병(花瓶), 화병(火病), 울화-병(鬱火病)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화병(花瓶) [花瓶], 화병(火病) [+火+病], 울화병(鬱火病) [+鬱火+病]

〈표〉는 표제어에 붙임표를 넣는 방식으로 조어구조를 보였다. ‘울화-병(鬱火病)’만 ‘울화’와 ‘병’의 결합인 것으로 표시하고 두 ‘화병’에 대해서는 붙임표를 넣지 않았다. 위의 논의에 따를 때 ‘화병(火病)’도 ‘화-병(火病)’과 같이 붙임표를 넣는 것이 옳다. 한편 〈고〉는 표제어의 표기를 건드리지 않고 [] 안에 조어구조를 따로 보였다. 이 사전에서 ‘+’는 단어 앞에 붙이는 기호이다. [花瓶]은 한국어 조어법에서 분석되지 않는다는 표시이고, [+火+病]과 [+鬱火+病]은 단어 ‘火’와 ‘鬱火’ 뒤에 단어 ‘病’이 결합했음을 표시한 것이다. 위의 논의에 정확히 들어맞는 분석이다.⁴

경문화사, 2013(개정판), 322-329쪽에서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한자어가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를 겪는 반면 한문문법에 의한 한자어가 그러지 않음을 논의한 데 바탕으로 둔 것이다.

- 3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편, 1999)을 〈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 2009)을 〈고〉로 약칭한다. 두 사전 모두 종이사전이 출판된 후에 웹사전으로도 출판되었다(〈표〉는 2008년, 〈고〉는 2012년). 웹사전은 수시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정된 판본을 언급하거나 인용하기 어렵다. 일단 2019년 1월 현재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있는 웹사전을 이용하되(〈표〉는 국립국어원 사이트, 〈고〉는 다음(www.daum.net) 사이트), 판본에 따라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언급한다.
- 4 국어사전 표제어의 조어구조 표시를 〈표〉와 같이 제시하는 것의 문제점과 이상적인 방안은 배주채, 「사전 표제어의 성분구조 표시에 대하여」, 『이병근선생퇴임기념 국어학논총』(태학사, 2005)에서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고〉의 표시 방법

〈고〉는 〈표〉를 여러모로 개선한 사전이다. 특히 조어구조 표시가 더 정교함을 위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 조어구조 표시도 위의 논의를 적용할 때 완전하지는 않음을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다.

단어	〈표준〉의 발음	조어구조 표시	
		〈표준〉	〈고려대〉
병기(病氣)	[병:끼]	병기	[+病-氣]
윤기(潤氣)	[윤:끼]	윤기	[潤氣]
촌기(村氣)	[촌:끼]	촌기	[村氣]

‘병기(病氣), 윤기(潤氣), 촌기(村氣)’는 위의 논의에 따를 때 단어 ‘병, 윤, 촌’과 접미사 ‘-氣’의 결합으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 식으로 조어구조를 표시하면 각각 [+病-氣], [+潤-氣], [+村-氣]가 될 것이다. 단어 뒤에 접미사 ‘-氣’가 결합할 때 셋 모두 경음화가 일어나 ‘기’가 [끼]로 발음된다. 이 세 단어에 대한 두 사전의 조어구조 표시 중 ‘병기(病氣)’에 대한 〈고〉의 표시만 옳다. 〈표〉는 세 단어 모두를, 〈고〉는 ‘윤기, 촌기’를 한문문법에 의한 한자어로 처리한 점에서 옳지 않다.⁵

한자 ‘氣’는 ‘병기(病氣), 윤기(潤氣), 촌기(村氣)’에서와 같이 접미사로 쓰여 한국어 조어법에 따라 파생어를 만들기도 하지만 ‘공기(空氣), 노기(怒氣)’ 등에서는 한자형태소로 참여하여 한문문법에 따른 단어를 만들기도 한다. 국어사전에서는 마땅히 ‘氣’가 참여한 단어들이 한국어 조어법을 따랐는지, 한문문법을 따랐는지, 한국어 조어법을 따랐다면 그 조어구조는 어떠한지를 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어사전들은 그 표시가 부정확하게

이 개선된 것이기는 하나 이상적인 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5 그렇더라도 〈고〉가 한국어 조어법에 대해 이론 성과가 대단함은 인정해야 한다. 한국어 단어 전체에 대해 일관성 있게 조어구조를 분석해 제시한 최초의 업적인 것이다.

나 불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한자 ‘氣’로 끝난 단어들의 조어구조를 한국어 조어법과 한문문법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⁶

II. 자료

1. 한자 ‘기(氣)’로 끝난 단어의 추출

우선 <표>의 표제어 가운데 한자 ‘氣’로 끝난 단어들을 모두 모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웹사전 <표>의 ‘자세히 찾기’ 기능을 이용해 원어가 ‘氣’로 끝난 표제어를 검색하면 646개가 나온다. 이 가운데 구(句) 99개, 비표준어 2개, 북한어 60개를 제외하면 표준단어는 485개가 된다.(앞으로 용례 문단에서 단어를 나열할 때 표기의 편의상 쉼표를 생략한다.)

구(99개)

가격^경기(價格景氣) 갈바니^전기(Galvani電氣) …

비표준어(2개)

땅기(-氣)(‘땅기’의 비표준어) 쇠기(-氣)(‘쇠기’의 비표준어)

북한어(60개)

가락지연기(---煙氣) 결합물기(結合-氣) …

표준단어(485개)

6 이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바탕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김창섭(2001), 앞의 논문, 배주채(2013), 앞의 책이 적절하고도 충분하다. 심사위원들이 한자어 조어법에 관한 다른 논문들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으나 다른 논문들의 내용은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의 논저들에 이미 제시된 내용의 부연이므로 추가 언급은 사족이 된다.

가기04(佳氣) 가기12(嘉氣) ... 흥분기01(興奮氣) 희기03(喜氣)⁷

웹사전 <표>에 ‘촉기’라는 표제어 둘이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촉기01[끼] 눈눈빛 따위에서 느껴지는 생기와 재기. ④ 촉기 넘치는 풍그란 눈에 도톰한 입술, 양 귀비를 닮았다는 버들눈썹이며, 뜯어볼수록 곱상하고...《문순태, 타오르는 강》/사내는 ... 눈에는 촉기가 팔팔하고 몸매도 다부졌다.《송기숙, 녹두 장군》

촉기02(觸氣)[끼] 닿①만져서 느껴지는 기운. ②『북한어』 사물이나 현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느끼는 기운.⁸

‘촉기01’은 원어 표시가 없어 둘째 음절 ‘기’가 한자 ‘氣’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자세히 찾기’로 검색된 646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 역시 이 단어의 원어 표시는 없다. 다만 그 조어구조를 [±촉+기]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촉기01’에 대한 <고>의 뜻풀이와 예문은 다음과 같다.

뜻풀이: 생기 있고 재치가 풍부한 모습이나 기운.

예문: 그의 목소리에는 촉기라곤 없이 이따금 가래 끓는 소리만 섞여 나왔다.

‘촉기01’에 대한 두 사전의 풀이를 종합하면 둘째 음절 ‘기’는 한자 ‘氣’와 관련된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첫째, <표>처럼 ‘촉기’를 형태분석하지 않는

7 ‘가기04(佳氣)와 같이 표제어 오른쪽에 붙인 번호는 <표>에서 동형 표제어를 구별하기 위한 표지이다. <표>와 <고>의 번호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선을 피하기 위해 <표>의 번호로 통일해서 표시한다.

8 관용구로 북한어 하나가 제시되어 있는 것은 인용하지 않는다.

다면 이 단어를 ‘초끼’로 적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발음과 달리 첫 음절을 ‘축’으로, 둘째 음절을 ‘기’로 적는다는 것은 이 단어의 조어구조를 ‘축’과 ‘기’의 결합으로 본다는 뜻이다.

둘째, <고>의 조어구조 [±축+기]는 <표>보다 개선된 것이기는 하나 조어구조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축’, 즉 어근 ‘축’의 정체는 무엇이며, ‘+기’, 즉 단어 ‘기’의 정체는 또 무엇인지 전혀 정보가 없다. ‘축’과 ‘기’를 한자로 적지 않았으므로 고유어로서 어근 ‘축’과 단어 ‘기’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고>에는 ‘축기01’와 관련지을 만한 고유어 표제어 ‘축’과 ‘기’가 없다.

셋째, ‘축기01’에 대한 두 사전의 뜻풀이와 예문을 살펴보면 둘째 음절 ‘기’가 한자 ‘氣’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축’은 한자와 관련짓기 어렵고 자립적으로 쓰이는 말도 아니므로 고유어 어근 또는 접두사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축기01’은 고유어 요소(어근 또는 접두사) ‘축’과 한자 ‘氣’가 결합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한자 ‘氣’로 끝난 표준단어는 위의 485개에 ‘축기01’을 더한 486개가 된다.

2. 한자 ‘기(氣)’가 직접성분이 아닌 단어의 제외

한자 ‘氣’로 끝난 표준단어 486개 중 일부 단어의 ‘氣’는 해당 단어의 직접성분(immediate constituent)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지자기(古地磁氣), 지자기02(地磁氣)’의 조어구조 표시는 다음과 같다.

<표>: 고-지자기 지-자기

<고>: [=古±地+磁氣] [±地+磁氣]

〈표〉가 표제어를 ‘고-지자기’로 표시한 것은 ‘고지자기’의 직접성분이 ‘고’와 ‘지자기’라는 뜻이다. ‘氣’는 ‘고지자기’의 직접성분이 아니다. ‘지자기02(地磁氣)’의 조어구조를 〈표〉가 ‘지-자기’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氣’는 ‘지자기02’의 직접성분도 못 된다. 〈표〉는 ‘자기11(磁氣)’의 조어구조 표시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원어를 ‘磁氣’로 표시했으므로 ‘자기’의 직접성분은 ‘磁’와 ‘氣’라고 할 수 있다. 〈고〉의 조어구조 표시에서도 ‘氣’가 ‘고지자기, 지자기02’의 직접성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지자기, 지자기02’에 들어 있는 ‘氣’는 ‘자기11’의 조어에만 직접 참여하고 있을 뿐, ‘고지자기’나 ‘지자기02’의 조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자기11’에서의 ‘氣’의 조어적 역할을 밝히면 ‘고지자기, 지자기02’의 조어구조와 ‘氣’의 관계는 저절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고지자기, 지자기02’ 등 ‘氣’가 직접성분이 아닌 단어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의 486개 중에서 〈표〉의 조어구조 표시를 통해 ‘氣’가 직접성분이 아닌 단어를 가려낸 것이 다음 74개이다.

건-각기(乾脚氣) 고-지자기(古地磁氣) 관천-망기(觀天望氣) … 흡-배기(吸排氣)

그런데 〈표〉에서 “‘무사기하다’의 어근.”으로 풀이한 ‘무사기(無邪氣)’도 이들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 어근 표제어에 대해서는 조어구조 표시를 보이지 않는다는 〈표〉의 방침에 따라 ‘무사기(無邪氣)’의 조어구조 표시는 없다. 그러나 ‘무사기(無邪氣)’는 ‘사기14(邪氣)’ 앞에 ‘무(無)’가 결합한 구조임이 틀림없다. 즉 조어구조를 ‘무-사기’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74개에 ‘무사기(無邪氣)’를 더한 75개는 어말의 ‘氣’가 직접성분이 아닌 단어들이다. 이제 486개에서 75개를 뺀 411개가 분석대상이 된다.’

3.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단어의 추출

앞절에서 가려낸 단어 411개를 I 장의 관점에서 두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남은 작업이다. <고>의 조어구조 표시가 <표>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하므로 <고>의 조어구조 표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고>의 조어구조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의 조어구조는 한자만 제시한다.

예) 윤기, 분위기, ‘금왕지기’의 조어구조를 각각 [潤氣], [霧圍氣], [金旺之氣]로 표시한다.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단어는 최종적으로 분석되는 성분들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때 각 성분들의 범주를 표시하는 기호를 그 앞에 붙인다. + 단어(조사 포함), ± 어근, = 접두사, - 접미사, _ 어미.

예) 병기05, 찰기02, 혹은, 얼룩덜룩하다, 되돌아가다의 조어구조를 각각 [+病-氣], [=찰-氣], [+或+은], [+얼룩±덜룩-하_다], [=되+돌_아+가_다]로 표시한다.

411단어 중 다음의 41개는 <고>에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다.

걱정-기(--氣) 건기03(乾氣) 날라리-기(---氣) ... 황기03(惶氣) 황기05(黃氣)

411개에서 이 41개를 뺀 370개는 <고>의 조어구조 표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 9 <고>에 표제어로 실린 ‘광기2(光氣), 해산기(解產氣)’는 <표>에 실려 있지 않다. 이들도 마땅히 본고의 분석대상에 추가해야 하나 <고>의 표제어 가운데 ‘氣’로 끝난 단어를 망라해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발견한 위의 두 단어만 추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하여 이 둘을 추가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에 대한 <고>의 조어구조 표시 [光氣], [+解產-氣]는 타당함을 밝혀 둔다.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 296개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단어: 74개

여기서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단어 74개는 조어구조 표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곱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단어+접미사 (52개)¹⁰

[+간-氣] [+㉔乾達-氣]¹¹ [+걸-氣] [+苦生-氣] [+誇張-氣] [+근심-氣] [+기름-氣] [+난봉-氣] [+老妄-氣] [+弄-氣] [+땀-氣] [+몸살-氣] [+물-氣] [+바람-氣] [+放浪-氣] [+病-氣] [+별-氣] [+불-氣] [+不良-氣] [+貧血-氣] [+疝-氣] [+소금-氣] [+愁心-氣] [+手顫-氣] [+술-氣] [+숨-氣] [+시장-氣] [+心術-氣] [+우쪼-氣] [+옥-氣] [+울-음-氣] [+웃-음-氣] [+怨望-氣] [+威嚴-氣] [+이슬-氣] [+人跡-氣] [+자-口-氣] [+장난-氣] [+精神-氣] [+嘲弄-氣] [+졸-음-氣] [+㉕津-氣] [+차_ㄴ-氣] [+滯症-氣] 풀기03[+폴-氣] 풀기04[+폴-氣]¹² [+피入-氣] [+號令-氣] [+화냥-氣] [+化粧-氣] [+後重-氣] [+興奮-氣]

단어+단어 (11개)

[+판+氣] [+不滿+氣] [+沙糖+氣] [+쇠入+氣] [+厄+氣] [+어리_ㄴ+氣] [+王+氣] [+二十+四+氣] [+철+氣] [+해入+氣] [+火+氣]

단어+어근 (1개)

[+呼吸±氣]

어근+단어 (3개)

-
- 10 [+울-음-氣]는 '단어+접미사+접미사', [+차_ㄴ-氣]는 '단어+어미+접미사'로 <고>에 표시되어 있지만 직접성분을 고려하면 '울음기, 찬기'는 각각 파생명사 '울음'과 관형사형 '찬'에 접미사 '-氣'가 결합한 구조이므로 '단어+접미사'로 분류한다.
- 11 '㉔'은 한국식 한자어를 표시한다. '乾達'이 한국식 한자어라는 뜻이다. 아래 [+㉕津-氣]의 '津'도 마찬가지이다.
- 12 <표>의 '풀기03'과 '풀기04'는 <고>에서 '풀기1'이라는 한 표제어로 통합되어 있다. 여기서는 일단 <표>에 따라 두 표제어로 구분해 둔다.

[±뚝+氣] [±선+氣] [±촉+기]

어근+접미사 (3개)

[±괄-氣] [±끈-氣]¹³ [±殊常-氣]

접두사+단어 (3개)

[=猛+氣] [=숫+氣]¹⁴ [=암+氣]

접두사+접미사 (1개)

[=찰-氣]

III. 분석

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단어+접미사’로 분석한 단어

〈고〉에서 ‘단어+접미사’로 분석한 52개(II장 3절 참조) 중 다음 단어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걸-氣] [+疝-氣] [+차_ㄴ-氣]

〈고〉에서 [+걸-氣]로 형태분석한 ‘걸기03(-氣)’은 〈표〉, 〈고〉 모두 발음을 [갈:기]로 보았다. 그 뜻을 〈표〉는 ‘비옥도(肥沃度: 땅이 걸고 기름진 정도)와 동의(同義)로 처리했고 〈고〉는 “땅이 양분이 많고 기름진 정도.”로 풀이했다. 이를 고려하면 〈표〉, 〈고〉의 원어와 〈고〉의 조어구조에 제시된 ‘氣’는 문제가 있다. ‘걸기03’은 형용사 ‘걸다01’(〈표〉: 흙이나 거름 따위가 기름지고 양분

13 종이사전은 [+끈-氣].

14 종이사전은 [=숫-氣].

이 많다.)에 한자 ‘氣’가 아닌 명사화접미사 ‘-기’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야 옳다. 첫째, ‘氣’로 끝난 단어 중에서 ‘氣’의 앞 성분에 용언이 쓰인 예들은 [+울-음-氣], [+웃-음-氣], [+자-口-氣], [+졸-음-氣]와 같이 명사화접미사 ‘-음’이 개재하거나 [+차_ㄴ-氣]와 같이 관형사형어미 ‘-은’이 개재한다. 그러므로 용언에 바로 ‘氣’가 결합하는 것은 조어구조상 특이하다. 둘째, 형용사에 명사화접미사 ‘-기’를 붙여 척도명사를 만드는 조어법은 일반적이다. 형용사에 ‘-기’가 붙은 ‘굳기, 밝기, 빠르기, 세기02, 크기’ 등이 그 예이다. ‘걸기’도 이들과 같은 부류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걸기03’은 [+걸-기]의 조어구조를 가진 것으로 처리하고 ‘氣’로 끝난 단어의 목록에서 제외한다.

‘찬기01’의 조어구조 [+차_ㄴ-氣]는 형용사 ‘차-’에 관형사형어미 ‘-은’이 붙은 관형사형 ‘찬’에 접미사 ‘-氣’가 결합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찬기01’은 관형사형 ‘찬’이 명사 ‘기14(氣)’를 수식하는 구성 ‘찬 기’가 어휘화하여 ‘찬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¹⁵ ‘찬결01, 찬국, 찬물01, 찬바람, 찬밥01, 찬방01, 찬비01, 찬술01, 찬웃음’ 등이 모두 관형사형 ‘찬’ 뒤에 명사가 이어진 구성이 어휘화를 거쳐 형성된 단어들이다. 그러므로 ‘찬기01’은 [[+차_ㄴ]+氣]의 조어구조, 즉 ‘단어+단어’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 처리한다.

‘산기03’의 조어구조 [+疝-氣]는 단어 ‘산03(疝)’에 접미사 ‘-氣’가 결합했다는 뜻이다. <표>, <고>에 따르면 다음 한의학 용어들은 동의관계에 있다.¹⁶

-
- 15 <표>에는 명사 표제어 ‘氣’가 둘 실려 있다. ‘기13’과 ‘기14’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찬기01’의 의미에 어울리는 명사는 “어떠한 기운.”으로 뜻풀이된 ‘기14’이다.
- 16 이들에 대한 <표>의 뜻풀이는 “생식기와 고환이 붓고 아픈 병증. 아랫배가 땅기며 통증이 있고 소변과 대변이 막히기도 한다.”이고, <고>의 뜻풀이는 “하복부 통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위염(胃炎), 담낭염(膽囊炎), 또는 담석(膽石), 장염(腸炎), 요통(腰痛) 따위가 원인이 되는 수가 많다.”이다.

산03(疝) 산기03(疝氣) 산병01(疝病)[-병] 산증01(疝症)[-증]

이와 비슷한 양상을 다음 한의학 용어들도 보여준다.

체07(滯) 체기03(滯氣) 체병02(滯病)[-병] 체증01(滯症)

이 가운데 2음절어 6개에 대해 <표>는 형태분석하지 않았고 <고>는 다음과 같이 조어구조를 표시했다. 두 사전이 제시한 발음을 함께 표시한다.

발음	[산기]	[산병]	[산증]	[체기]	[체병]	[체증]
조어구조	[+疝-氣]	[+疝+病]	[疝症/疝證]	[滯氣]	[滯病]	[滯症/滯證]

이 가운데 ‘산병01, 산증01, 체병02’는 둘째 음절이 경음화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단어로 분석하는 것이 옳다. 두 사전에 ‘산03, 체07, 병04, 증04’가 모두 단어로 실려 있으므로 ‘산병01, 산증01, 체병02’는 모두 ‘단어+단어’의 구조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체증01’은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 단어가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단어라는 적극적인 증거가 없다. ‘滯症’의 형성은 한문문법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한국어 조어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한자로 이루어진 한의학 용어는 오래전에 한문문법에 의해 형성된 것이 틀림없다. 위의 ‘산병01, 산증01, 체병02’도 원래 한문문법에 따라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어 조어법에 따라 조어구조가 재해석됨으로써 경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체증01’은 아직도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체증01’을 사람에게 따라서는 경음화된 [체증]으로 발음할 수도 있는 듯하다. 그러한 사람에게

‘체증01’은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단어로 재해석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I 장의 논의와 관련지으면, 경음화가 일어난 ‘병기05(病氣), 윤기(潤氣), 촌기(村氣)’는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단어들이고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산기03, 체기03’은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산기03, 체기03’을 [산끼], [체끼]로 경음화해 발음하는 사람은 이들을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단어로 재해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사전의 발음 표시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위의 여섯 단어의 조어구조는 다음과 같다. ‘산기03’의 조어구조는 [+疝-氣]가 아닌 [疝氣]가 된다. 즉 ‘산기03’은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이다.

발음	[산기]	[산병]	[산쫑]	[체기]	[체병]	[체증]
조어구조	[疝氣]	[+疝+病]	[+疝+症]	[滯氣]	[+滯+病]	[滯症]

요컨대 <고>에서 ‘단어+접미사’로 분석한 52개 중 다음 셋은 ‘단어+접미사’의 구조가 아닌 것으로 처리한다.

결기03 [+결-기]: 명사화접미사 ‘-기’가 참여한 파생어로서 ‘氣’와 관계없다.

찬기01 [+ [+차_]+氣]: ‘단어+단어’의 구조이다.

산기03 [疝氣]: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이다.

2.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단어+단어’로 분석한 단어

<고>에서 ‘단어+단어’로 분석한 11단어(II장 3절 참조)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어+단어

[+[어리_ㄴ]+氣] [+철+氣]

어근+단어

[±판+氣]

단어+접미사

[+不滿-氣] [+沙糖-氣] [+쇠ㅅ-氣] [+厄-氣] [+해ㅅ-氣]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

[王氣] [二十四氣] [火氣]

[+[어리_ㄴ]+氣]는 기본적으로 <고>의 [+어리_ㄴ+氣]와 같으나 <고>와 달리 직접성분구조를 표시한 것이다. '어린기'는 앞절의 '찬기01'과 조어구조가 똑같다. 즉 형용사 '어리-'의 관형사형 '어린'에 명사 '기14'가 결합한 것이다.

[+철+氣]는 <고>와 똑같다. '氣'가 접미사라면 I장에서 보았듯이 경음화되었을 것이다. 경음화되지 않은 발음 [철기]를 근거로 '氣'를 명사 '기14'로 처리한다.

'판기'는 저빈도어라서 그 의미 이해와 조어구조 분석이 쉽지 않다. '판기'의 뜻을 <표>는 “넉뜨는 기운.”으로, <고>는 “어떤 일에 기운차게 앞질러 나설 기운(氣運).”으로 풀이했다.¹⁷ 두 사전 모두 예문 제시는 없다. <고>의 조어구조 표시 [+판+氣]는 첫 음절 '판'이 단어라는 뜻이다. <고>에 표제어로 수록된 단어 '판'은 다음 셋이다.

판1 ㉸ ①속으로 헤아려 보아 까닭이 될 만한 생각이나 가늠. ②'내', '자기',

17 '판기'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표>, <고>에서 똑같이 “기력이 약하여 힘차게 앞질러 나서는 기운이 없다.”로 풀이한 형용사 '판기적다'가 참고가 된다.

‘제’ 등의 인칭 대명사와 함께 쓰여, 스스로의 생각이나 가능의 뜻을 나타내는 말.

판2 [판:] 罽 예전에, 포도청에서 포교의 심부름을 하며 도둑을 잡는 일을 거들던 사람을 이르던 말.

판3 罽 ①어떤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②해당되는 것 이외의. ③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이 셋은 ‘판기’의 첫 음절 ‘판’과 조어상 관련이 있다고 하기에는 의미가 동떨어진다. 또 ‘판기’의 첫 음절은 단음(短音)이므로 ‘판2’와는 발음 차이도 문제가 된다. 결국 <고>의 [+판+氣]는 단어 ‘판’이 어떤 단어인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표>가 표제어를 ‘판-기’로 분석해 놓은 것도 이 점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판기’가 ‘판’과 ‘氣’의 결합으로 분석되지만 ‘판’의 정체는 불분명하다. ‘판’이 기존의 어떤 단어와 같은 존재라는 증거가 없다면 어근으로 처리해 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기’가 [끼]로 경음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氣’를 접미사가 아닌 명사 ‘기14’로 보는 것이 나아 보인다. 즉 III장 3절에서 불 [+끈+氣], [+선+氣]처럼 [+판+氣]로 처리한다.

[+不滿-氣], [+沙糖-氣], [+쇠ㅅ-氣], [+ㅈ-氣], [+해ㅅ-氣]는 의미와 문법범주와 발음의 관점에서 ‘단어+접미사’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접미사 ‘-氣’는 <표>의 뜻풀이처럼 ‘기운, 성분, 느낌’을 뜻한다고 할 수도 있고, <고>의 뜻풀이처럼 ‘기운, 성질, 기질, 기색’을 뜻한다고 할 수도 있다. 위의 ‘불만기, 사탕기, 쇠기, 헛기’의 ‘-氣’의 의미도 그와 같다. 그리고 각 단어의 앞 성분은 단어 ‘불만, 사탕02, 쇠01, 액02, 해01’임이 분명하다. 또 ‘액02’ 이외의 네 단어에 ‘-氣’가 결합할 때 경음화가 일어나 각각 [불만끼], [사탕끼], [쇠끼/췌끼], [해끼/햐끼]가 된다. ‘액기 [액끼]’는 평폐쇄음 [ㄱ] 뒤에서 무조

건 일어나는 경음화에 ‘氣’가 일으키는 경음화가 가려 있으므로 발음상의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다.

‘왕기01, 화기02’는 ‘氣’의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앞 성분이 단어 ‘왕(王), 화08(火)과 의미상 관련되므로 이들 뒤에 명사 ‘기14’가 한국어 조어법에 따라 결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절의 ‘산기03, 체기03’와 마찬가지로 ‘왕기01, 화기02’도 역사가 오랜 단어들이 틀림없으므로 다른 증거가 없다면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십사기’는 수사(또는 수관형사) ‘이십사’가 명사 ‘기13’ 또는 ‘기14’를 수식하는 ‘관형어+명사’의 구조로서 ‘단어+단어’ 구조에 속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이십사기’의 ‘氣’는 절기(節氣)의 뜻을 가지는데 한국어 명사 ‘기14’에는 그런 뜻이 없고 ‘기13’의 세 번째 뜻이 절기에 가까운 뜻이다.

③예전에, 중국에서 15일 동안을 이르던 말. 이것을 셋으로 갈라 그 하나를 후(候)라 하였다.

<표>의 ‘기13’에 해당하는 <고>의 표제어 ‘기1’의 풀이에는 이런 뜻이 나와 있지 않다. <고>가 이것을 이미 사라진 뜻,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어 명사가 아닌 한자형태소 ‘氣’가 가진 뜻으로 본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십사기’는 ‘二十四’와 ‘氣’가 한문문법에 따라 결합한 단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 밖의 단어

Ⅱ장 3절에서 분류한 단어 74개 가운데 Ⅲ장 1절과 2절에서 다루지 않은 단어 11개에 대한 <고>의 조어구조 표시를 다시 보인다.

단어+어근: [+呼吸±氣]

어근+단어: [±뚝+氣] [±선+氣] [±축+기]

어근+접미사: [±괄-氣] [±끈-氣] [±殊常-氣]

접두사+단어: [=猛+氣] [=솟+氣] [=암+氣]

접두사+접미사: [=찰-氣]

‘호흡기01’은 의학 용어로서 <표>에서 ‘일회 호흡량’의 동의어로,¹⁸ <고>에서 “일반적으로 숨 쉴 때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것 중 어느 하나의 공기 부피.”로 풀이했다. ‘호흡기01’의 ‘호흡’은 기존의 단어 ‘호흡’과 일치한다. 말음절 ‘기’의 정체가 무엇이나가 문제다. 의미로 보면 접미사 ‘-氣’는 아니다. <표>에 표제어로 실린 명사 ‘기13, 기14’(<고>에서는 각각 ‘기1, 기4’)의 어느 뜻도 ‘호흡기01’의 뜻과 직결되지 않는다. <고>에서 ‘氣’를 어근으로 표시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듯하다. 또다른 가능성은 ‘호흡기01’을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로 보는 것이다.

‘호흡기01’의 조어구조를 판단하기 위해 유사한 구조로 보이는 의학 또는 한의학 용어들을 살펴본다. 2음절어에 ‘氣’가 붙은 3음절어인 의학 또는 한의학 용어 7개를 <표>는 다음과 같이 모두 ‘2음절+기’의 구조로 표제어에 표시했다.

막외-기(膜外氣) 매핵-기(梅核氣) 수전-기(手顫氣) 자수-기01(子水氣) 천축-기(喘促氣) 현훈-기(眩暈氣) 호흡-기01(呼吸氣)

이 가운데 <고>는 ‘막외기(膜外氣), 현훈기(眩暈氣)’ 외에 5개를 표제어로

18 <표>에 ‘일회 호흡량’은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고 ‘호흡량’이 생물학 용어로,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동물에 의해서 흡입 또는 배출되는 공기의 양. 사람의 경우 약 500mL이다.”로 풀이되어 있다.

실었다. <고>의 조어구조는 다음과 같다.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 [梅核氣] [子水氣] [喘促氣]

단어+접미사: [+手顫-氣]

단어+어근: [+呼吸±氣]

이 가운데 ‘수전기’는 그 발음 [수전끼] 때문에 접미사 ‘-氣’가 붙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나머지 중 ‘자수기01’은 그 발음 [자수기] 때문에 접미사 ‘-氣’가 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매핵기, 천축기, 호흡기01’은 평폐쇄음 뒤 경음화 때문에 발음에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매핵기, 자수기, 천축기’의 ‘氣’는 모두 증세를 나타내고 ‘호흡기01’의 ‘氣’는 공기를 뜻한다. 한국어 단어나 어근으로 그러한 ‘氣’가 <표>, <고>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한자형태소 ‘氣’가 쓰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고>가 화학 용어 ‘폭명기(爆鳴氣)(한 개의 산소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한 혼합 기체. [유의어] 폭명가스(爆鳴gas))의 조어구조를 [爆鳴氣]로 표시하여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로 처리한 것을 참고하면 ‘호흡기01’도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¹⁹

<고>에서 앞 성분을 어근으로 본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어근+단어: [±뚝+氣] [±선+氣] [±축+기]

어근+접미사: [±괄-氣] [±끈-氣] [±殊常-氣]

19 만약 ‘호흡기01, 폭명기’의 ‘氣’에 근거하여 기체를 뜻하는 명사 ‘氣’를 인정한다면 이들을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단어 [+호흡+기], [+폭명+기]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표>와 <고>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 뚝기: <표>굳게 버티어 내는 기운. <고>묵묵히 참고 굳게 버티어 내는 기운.
선기01: <표>선선한 기운. <고>더위가 물러간 뒤 느껴지는 선선한 기운.
촉기01: <표>눈빛 따위에서 느껴지는 생기와 재기. <고>생기 있고 재치가
풍부한 모습이나 기운.
팔기: <표>성질이 세고 급한 기세. <고>거세고 급한 성질.
끈기: <표>①물건의 끈끈한 기운. ②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견디
어 나가는 기운. <고>①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버티어
나가는 기운. ②(기본의미) 물건의 끈끈한 기운.
수상기03: <표>수상스러운 낌새. <고>수상스러운 기운.

뜻풀이 끝의 피수식어가 ‘기운, 생기, 재기, 기세, 성질, 낌새’ 등이라는 것은 이들의 뒷 성분 ‘氣’가 접미사 ‘-氣’라는 의미적 근거가 된다. 특히 ‘촉기01’에 대해서는 II장 1절에서 고유어 요소(어근 또는 접두사) ‘촉’과 한자 ‘氣’의 결합으로 보았는데 의미의 관점에서 뒷 성분 ‘氣’를 접미사 ‘-氣’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첫 음절 ‘촉’은 접두사가 아닌 어근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촉-기]의 구조라는 것이다. 나머지도 일단 ‘어근+접미사’의 구조, 즉 [±뚝-氣], [±선-氣], [±팔-氣], [±끈-氣], [±殊常-氣]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선기01, 끈기03’의 발음(發音) [선기], [끈기]는 걸림돌이다. ‘팔기, 수상기03’은 발음이 각각 [팔개], [수상개]로서 접미사 ‘-氣’의 결합에서 경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선기01, 끈기03’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선기01’은 저빈도어라서 어떤 발음이 일반적인지 선뜻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표>의 발음이 [선기]인 데 대해 <고>의 발음이 [선개]인 것이 그러한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발음에 관한

한 <고>는 <표>를 베꼈다고 할 만큼 같다. 두 사전의 발음 표시가 다른 예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선기01’에서 경음화 여부가 차이가 난다. 이것은 의도적인 수정으로 보인다.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선기01’의 발음을 <고>에 따라 [선끼]로 보면 [±선-氣]로의 분석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용빈도가 꽤 높은 ‘끈기’는 두 사전 모두 발음을 [끈기]로 보고 있고 현실발음도 그와 같음이 분명하다. ‘끈기’를 [±끈-氣]로 분석한다면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외가 된다. 이 예외를 피하기 위해서는 ‘끈기’를 [±끈+氣]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선기01’도 <표>의 발음 [선끼]를 따른다면 조어구조를 [±선+氣]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끈기’와 ‘선기01’의 뒷 성분인 단어 ‘氣’는 <표>의 ‘기14’이다. <표>, <고>(중이사전) 모두 이 단어를 “어떠한 기운.”으로 뜻풀이했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표>의 예문: 그에게는 아직도 문학 소년의 기가 남아 있다./그 두꺼운 입술에 붉은 기가 없고, 일부는 하얗게 메말라 있다.<김원우, 짐승의 시간>

<고>(중이사전)의 예문: 은호에게서는 팬스레 문학소녀의 기가 느껴진다.

예문에서의 쓰임을 보면 ‘기14’의 뜻은 ‘기운, 기질, 기색, 느낌’ 등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이것은 ㅍ장 1절의 ‘찬기01’, ㅍ장 2절의 ‘어린기’에 들어

20 <고>(웹사전)에서는 단어 ‘氣’의 표제화와 뜻풀이가 바뀌었다. <표>의 ‘기13’과 ‘기14’에 각각 대응하는 <고>(중이사전)의 ‘기1’과 ‘기4’를 <고>(웹사전)에서는 ‘기1’ 한 표제어로 통합한 것이다. 그리고 ‘기4’의 풀이를 ‘기1㉔’와 합쳤다. 뜻풀이는 “사람이 상대나 주위에 대해 가지는 기분.”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기운.”으로 바뀌었다. 예문은 ‘기1㉔’의 3개에 하나를 추가했는데 추가한 예문은

있는 ‘氣’의 의미와 동일하다. 따라서 ‘끈기’와 ‘선기01’의 ‘氣’를 단어 ‘기14’로 처리한다. 즉 이들의 조어구조를 [±끈+氣], [±선+氣]로 처리한다.

〈고〉는 다음 단어들이 접두사를 가진 것으로 처리했다.

접두사+단어: [=猛+氣] [=숫+氣] [=암+氣]

접두사+접미사: [=찰-氣]

‘맹기01’은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로 보아야 할 듯하다. 우선 발음 [맹기]에 경음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접미사 ‘-氣’가 붙은 구조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접두사 ‘猛-’ 뒤에 대체로 2음절어가 결합한다는 일반성에도 벗어난다. 접두사 ‘猛-’을 가진 단어를 〈표〉의 표제어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모두 ‘1음절+2음절’ 구조이다.

맹공격 맹돌진 맹비난 맹사격 맹속력 맹연습 맹추격 맹추위 맹타격 맹포격
맹포화 맹폭격 맹화력 맹활동 맹훈련

‘숫기’는 [+수+氣]로 보는 것이 나은 듯하다. ‘숫기’는 의미상으로 접미사 ‘-氣’가 결합한 구조가 적격이다. ‘수/숫’이 접두사로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나 ‘암수’와 같이 ‘단어+단어’ 구조도 있다(〈고〉의 조어구조 표시가 [+암+수]이다). 단어 ‘수’ 뒤에 접미사 ‘-氣’가 결합하면서 경음화가 일어나고

〈고〉(중이사전) ‘기4’의 예문을 수정한 것이다. ‘기1②’의 예문 4개는 다음과 같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기를 꺾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형이 취직에 실패하고는 늘 기가 눌려 지났다./시험에 실패했다고 기가 죽어 있는 아들의 모습이 애처로웠다./책 읽고 글 쓰기를 좋아하는 막내에게서 일찌기 문학소녀의 기가 느껴졌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표〉의 예문에 쓰인 ‘붉은 기’처럼 사물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기’의 용법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씻기, 헹기’처럼 사이시옷이 표기에 드러난 것으로 보면 된다.

‘암기01(-氣)는 발음이 [암끼]로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표〉) 또는 “남을 시샘하는 마음.”(〈고〉)으로 풀이되어 있다. ‘암기01’에 대한 작성례가 아닌 인용례는 〈표〉의 다음 문장이다.²¹

왕의 인자스럽던 용안은 금방 탄 사람인 양 **암기**가 드러나도록 변했다.〈박중화, 다정불심〉

‘암기01’의 원어와 위 예문의 의미를 고려하면 그 뜻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기색.’ 또는 ‘남을 시샘하는 기색.’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암기01’의 ‘氣’는 접미사 ‘-氣’의 의미에 잘 들어맞는다. 그리고 경음화가 일어난 발음도 접미사 ‘-氣’로의 분석을 뒷받침해 준다. 그렇다면 첫 음절 ‘암’을 접두사로 보기는 어렵다. ‘접두사+접미사’라는 조어구조는 모순이기 때문이다. ‘암’을 어근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암’은 ‘암상’(〈표〉: [암:상] 남을 시기하고 샘을 잘 내는 마음. 또는 그런 행동.)의 ‘암’이 틀림없어 보인다.

‘찰기02’를 ‘접두사+접미사’로 본 것 역시 이론적 모순이다. ‘찰기02’는 ‘어근+접미사’ [±찰-氣] 또는 ‘접두사+단어’ [=찰+氣]라고 보아야 한다. 전자는 경음화되지 않은 발음 [찰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 후자가 자연스러운 분석이다.²²

21 저빈도어에 대한 작성례는 사전 집필자의 오해나 주관이 개입하여 단어의 본래 의미나 용법에서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용례의 쓰임이 중요하다.

22 홍종선·김양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접사 선정의 기준」, 『한국어학』 54(2012)에서는 〈고〉에 실린 ‘접두사+접미사’라는 모순적인 조어구조의 표제어 20개를 추출해 보여주고(군談, 내뜨리다, 덧간, 덧배기, 막치, 만間, 떡紙, 민짜, 本形, 副쇠, 生꾼, 生짜, 惡處, 洋아치, 외동이, 中쇠, 쪽紙, 찰氣, פות내기, 헹내기), 이러한 조어구조의 해석에 새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러한 새 연구를

이 절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 [猛氣] [呼吸氣]

단어+접미사: [+수스-氣]

어근+단어: [+끈+氣] [+선+氣]

어근+접미사: [+괄-氣] [+뚝-氣] [+殊常-氣] [+암-氣] [+촉-氣]

접두사+단어: [=찰+氣]

4.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

II장 3절에서 본 바와 같이 <고>가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로 처리한 표제어는 296개이다. 이 가운데 조어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만 언급한다.

다음 2음절어들은 1음절어에 단어 ‘氣’ 또는 접미사 ‘-氣’가 한국어 조어법에 따라 결합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간기03(肝氣) 독기(毒氣) 산기02(山氣) 신기05(神氣) 열기07(熱氣) 운기02(運氣)
위기05(胃氣) 이기09(理氣) 체기03(滯氣) 향기01(香氣) 혼기02(魂氣)

이들은 ‘氣’의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접미사 ‘-氣’가 붙은 것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그 대신 단어 ‘氣’가 붙은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III장 1절-3절에서 ‘어린기, 찬기01, 끈기, 선기01’을 단어 ‘氣’가 붙은

통해 이들의 진짜 조어구조가 ‘접두사+접미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되길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일단 ‘찰기02’에 대해 ‘접두사+접미사’라는 모순적 조어구조를 피해 ‘접두사+단어’ 구조로 보아 둔다.

것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으면 조어구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위의 ‘간기03’ 등은 전형적인 2음절 한자어로서 오래전부터 쓰여 온 단어들이다. 이들이 새롭게 ‘단어+단어’의 구조로 재해석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²³

다음은 ‘氣’의 경음화가 일어나는 단어 17개이다. <표>의 발음표시를 병기한다.

간기08(痾氣)[간:끼] 걸기04(傑氣)[-끼] 걸기01(-氣)[-끼] 경기14(驚氣)[-끼] 광기(狂氣)[-끼] 궁기02(窮氣)[-끼] 담기01(痰氣)[담:끼] 담기02(膽氣)[담:끼] 산기04(産氣)[산:끼] 산기07(酸氣)[-끼] 염기05(鹽氣)[-끼] 윤기02(潤氣)[윤:끼] 인기01(人氣)[-끼] 촌기02(村氣)[촌:끼] 충기(蟲氣)[-끼] 탄기(炭氣)[탄:끼] 탕기02(蕩氣)[탕:끼]

이 가운데 ‘걸기01(-氣)’는 <표>에서 붙임표로 분석하지 않았고 <고>에서 조어구조를 [결氣]로 표시했다. [결氣]은 <고>의 정상적인 조어구조 표시가 아니다. 아마도 단순한 오류인 듯 보인다. 단어 ‘결02’에 접미사 ‘-氣’가 붙은 구조 [+결-氣]로 표시해야 할 것이다.

‘윤기02(潤氣), 촌기02(村氣)’는 I 장에서 ‘단어+접미사’의 구조임을 논의한 바 있다. 나머지도 접미사 ‘-氣’가 붙은 구조로 분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앞 성분이 단어인지 어근인지는 다음과 같이 구별할 필요가

23 ‘신기05(神氣)’의 <표>, <고>의 발음은 [신기]이지만 현실발음에서는 [신끼]가 다소 우세한 듯하다. 전자는 전통적인 발음으로서 한문문법에 의한 조어구조 [神氣]에, 후자는 최근에 형성된 발음으로서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조어구조 [+神-氣]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성03(神性)’에 대한 <표>, <고>의 발음 [신성]과 최근의 현실발음 [신쌩]의 차이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있다. 앞 성분이 <표>에 표제어로 올라 있는 단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단어+접미사’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어근+접미사’로 처리한다. 결국 위의 17단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단어+접미사 (10개)

결기01(-氣) 궁기02(窮氣) 담기01(痰氣) 담기02(膽氣) 산기07(酸氣) 염기05(鹽氣) 윤기02(潤氣) 촌기02(村氣) 충기(蟲氣) 탄기(炭氣)

어근+접미사 (7개)

간기08(癩氣) 걸기04(傑氣) 경기14(驚氣) 광기(狂氣) 산기04(産氣) 인기01(人氣) 탕기02(蕩氣)

5.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

다음 41단어는 <고>에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다.

강기02(降氣) 강기04(強氣) 걱정-기(--氣) 건기03(乾氣) 경기07(經氣) 날라리-기(---氣) 달기03(疸氣) 도기07(道氣) 도기09(導氣) 동기01(冬氣) 막외기(膜外氣) 목기02(木氣) 무기06(無氣) 벽기01(癖氣) 삼기01(三氣) 상기18(傷氣) 소기09(少氣) 약기01(岳氣/嶽氣) 약기05(藥氣) 어리광-기(---氣) 연화-기(煙火氣) 위협-기(威脅氣) 응석-기(--氣) 익기02(益氣) 장기20(臟氣) 쟁기03(爭氣) 접령지기(接靈之氣) 정기10(情氣) 조기12(調氣) 촉기02(觸氣) 총명-기01(聰明氣) 취기02(翠氣) 침-기(-氣) 파기04(破氣) 포기06(曝氣) 현훈-기(眩暈氣) 호기02(好氣) 호기07(狐氣) 황기03(惶氣) 황기05(黃氣) 흥기01(興氣)

조어구조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다음 10개는 ‘단어+접미사’와 ‘어근+접미사’로 판단된다. <표>의 발음 표시를 병기한다.

단어+접미사 (9개)

걱정-기(--氣)[-쯔끼] 날라리-기(--氣)[---끼] 어리광-기(--氣)[---끼] 위
협-기(威脅氣)[--끼] 응석-기(--氣)[응:-끼] 총명-기01(聰明氣)[--끼] 침-기(-
氣)[-끼] 현훈-기(眩暈氣)[현:-끼] 흥기01(興氣)[-끼]

어근+접미사 (1개)

건기03(乾氣)[-끼]

‘위협기, 응석기’는 평폐쇄음 뒤 경음화 때문에 ‘-氣’의 경음화가 보이지
않으나 2음절어에 접미사 ‘-氣’가 붙은 단어의 전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어+접미사’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

‘건기03’는 ‘氣’의 경음화나 의미로 보아 접미사 ‘-氣’가 결합한 단어임이
틀림없다. ‘건’은 <표>에서 “‘건하다02’의 어근.”으로 풀이된 ‘건06(乾)’이
틀림없다.

이 10개를 제외한 31개는 모두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로 처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어 조어법에서 어말의 ‘氣’는 ‘단어+접미사’
구조에 많이 쓰임을 확인하게 된다.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단어 93개 가운데
73개가 ‘단어+접미사’ 구조인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앞 성분이 고유어인
혼종어가 다음과 같이 29개나 된다.

간기, 근심기, 기름기, 난봉기, 땀기, 몸살기, 물기, 바람기, 별기, 불기,
소금기, 씻기, 술기, 숨기, 솟기, 시장기, 우쭐기, 육기, 울음기, 웃음기,
이슬기, 잠기, 장난기, 줄음기, 풀기03, 풀기04, 핏기, 화냥기, 헛기

한자계 접미사 ‘-氣’가 다양한 고유어에 붙는다는 것은 ‘-氣’가 한국어
조어법에서 접미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굳혔다는 뜻이다.²⁴ 또 이들은
‘별기, 육기’를 제외하면 모두 ‘-氣’가 붙을 때 경음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나

접미사 ‘-氣’가 사전치성 형태소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²⁵

IV. 맺음말

한국어 한자어는 한문문법에 의한 한자어와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한자어로 구분된다. 한자 ‘氣’로 끝난 단어들을 국어사전에서 추출해 각 단어가 이 두 유형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한자어라면 그 조어구조는 어떠한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II장 1절에서는 웹사전 <표>의 ‘자세히 찾기’ 기능을 이용해 원어가 ‘氣’로 끝난 표제어 646개를 찾고 그 가운데 표준단어 485개를 확인했다. ‘축기01’은 <표>, <고>에 원어 표시가 없어 이 검색 결과에 없으나 한자 ‘氣’로 끝난 단어가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한 486개를 분석대상의 후보로 삼았다.

II장 2절에서는 ‘고지자기(古地磁氣), 지자기02(地磁氣)’와 같이 어말의 ‘氣’가 직접성분이 아닌 단어 75개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결과 분석대상 단어는 411개가 되었다.

-
- 24 <표>의 표제어 검색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현실어에서는 외래어에 접미사 ‘-氣’가 붙은 혼종어도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알코올기가 날아가다’, ‘재즈기 짙은 음악’ 등. 이것도 접미사 ‘-氣’의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 25 임홍빈,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10(1981)은 앞 말과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할 때 항상 사이시옷을 앞에 두는 ‘氣’ 등을 “스-前置名詞”라 부른 바 있고, 김창섭,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태학사, 1996)의 §2.3.3에서도 그 개념을 받아들였다. 이때의 ‘氣’가 명사가 아닌 접미사이고 사전치성을 가진 요소가 명사인 것도 있지만 접미사인 것도 있으므로 배주채, 『한국어의 발음』(삼경문화사, 2003/2013), 281쪽/262쪽에서는 “스전치성 형태소”라고 했다.

Ⅱ장 3절에서는 <고>의 조어구조 표시를 기준으로 분석대상 단어들을 분류했다. <고>에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은 ‘걱정기(--氣), 건기03(乾氣), 날라리-기(--氣)’ 등 41개를 제외한 370개를 분류했다. 그 결과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가 296개,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단어가 74개로 확인되었다. 이들을 조어구조에 따라 세분하면 ‘단어+접미사’(52개), ‘단어+단어’(11개), ‘단어+어근’(1개), ‘어근+단어’(3개), ‘어근+접미사’(3개), ‘접두사+단어’(3개), ‘접두사+접미사’(1개)이다.

Ⅲ장 1절에서는 <고>에서 ‘단어+접미사’로 분석한 단어 52개 중 ‘결기03, 찬기01, 산기03’의 조어구조를 검토했다. 그 결과 이들의 조어구조가 <고>의 표시와 달리 각각 [+결-기], [+차-기]+氣, [氣]임을 확인했다. 즉 ‘산기03’은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이고 ‘결기03’은 ‘氣’로 끝난 단어가 아니다.

Ⅲ장 2절에서는 <고>에서 ‘단어+단어’로 분석한 11개를 검토했다. 그 결과 ‘단어+단어’ 구조인 [+어리-기]+氣, [+철+氣], ‘어근+단어’ 구조인 [±판+氣], ‘단어+접미사’ 구조인 [+不滿-氣], [+沙糖-氣], [+쇠-기]+氣, [+厄-氣], [+해-기]+氣,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인 [王氣], [二十四氣], [火氣]를 확인했다.

Ⅲ장 3절에서는 <고>에서 어근이나 접두사가 들어 있는 구조로 분석한 단어 11개를 검토했다. 그 결과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인 [猛氣], [呼吸氣], ‘단어+접미사’ 구조인 [±수-기]+氣, ‘어근+단어’ 구조인 [±끈+氣], [±선+氣], ‘어근+접미사’ 구조인 [±팔-氣], [±뚝-氣], [±殊常-氣], [±암-氣], [±축-氣], ‘접두사+단어’ 구조인 [=찰+氣]를 확인했다.

Ⅲ장 4절에서는 <고>가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로 처리한 296개 가운데 재검토가 필요한 일부를 논의했다. ‘간기03(肝氣), 독기(毒氣), 산기02(山氣)’ 등 일부 2음절어들을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로 인정했다. 한편 ‘氣’의 경음화가 일어난 2음절어들은 ‘단어+접미사’ 구조인 ‘궁기02(窮氣) 담기01(痰氣)’ 등과 ‘어근+접미사’ 구조인 ‘간기08(癰氣) 걸기04(傑氣)’ 등으로 바꾸어 분석

했다.

Ⅲ장 5절에서는 <고>에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은 단어 41개를 검토했다. 이들을 ‘단어+접미사’ 구조인 ‘걱정기(--氣), 날라리기(---氣)’ 등과 ‘어근+접미사’ 구조인 ‘건기03(乾氣), 그리고 그 밖의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로 구분했다.

분석대상 411단어 중 ‘氣’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걸기03’을 제외한 410단어의 조어구조와 단어 수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단어 (93개)

단어+접미사 (73개)

단어+단어 (3개)

어근+어근 (0개)

어근+단어 (3개)

어근+접미사 (13개)

접두사+단어 (1개)

접두사+접미사 (0개)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 (317개)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자 ‘氣’가 한국어 한자어의 어말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말의 ‘氣’는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어 조어법에서는 접미사나 단어로 참여하되 접미사로의 참여가 더 많다.

참고문헌

1. 사전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웹사전: <https://dic.daum.net/>].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2008, 개정판)[웹사전: <http://stdweb2.korean.go.kr/>].

2. 단행본

- 김창섭,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1996.
- 배주채,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2003(2013, 개정판).

3. 논문

- 김창섭,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37, 2001, 177-195쪽.
- 배주채, 「사전 표제어의 성분구조 표시에 대하여」. 『이병근선생퇴임기념 국어학 논총』, 태학사, 2005, 737-755쪽(배주채, 『한국어의 어휘와 사전』. 태학사, 2014에 재수록).
- 임홍빈,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10, 1981, 1-35쪽.
- 홍종선·김양진,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2009) 접사 선정의 기준」. 『한국어학』 54, 2012, 325-359쪽.

국문초록

한국어 한자어는 한문문법에 의한 한자어와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한자어로 구분된다. 웹사이트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실린 단어 가운데 한자 ‘氣’로 끝난 표준단어는 486개이다. 이 가운데 어말의 ‘氣’가 직접성분이 아닌 단어 75단어를 제외한 411단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411단어 중에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은 41단어를 제외하면 370단어이다. 이 370단어 중에서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한자어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조어구조 표시에 따르면 74개이다. 이 74단어를 세분하면 ‘단어+접미사’(52개), ‘단어+단어’(11개), ‘단어+어근’(1개), ‘어근+단어’(3개), ‘어근+접미사’(3개), ‘접두사+단어’(3개), ‘접두사+접미사’(1개)이다.

이상의 단어들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분석대상 411단어는 한문문법에 의한 단어가 317개, 한국어 조어법에 의한 단어가 93개로 확인되었다. 이 93단어를 세분하면 ‘단어+접미사’(73개), ‘단어+단어’(3개), ‘어근+단어’(3개), ‘어근+접미사’(13개), ‘접두사+단어’(1개)이다.

투고일 2019. 3. 20.

심사일 2019. 4. 8.

게재 확정일 2019. 8. 13.

주제어(keyword) 한자어(Sino-Korean word), 한문문법(classical Chinese grammar), 조어법(word formation), 조어구조(word formational structure), 어근(root), 접미사(suffix), 국어사전(Korean dictionary)

Abstracts

The Structure of Korean Words Ending in Chinese Character *Gi* Bae, Juchae

Sino-Korean words are of two types, the one based on Old Chinese grammar and the other based on Present-day Korean word formation.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1999/2008) has 486 standard words ending in Chinese character *gi* (氣), among which 411 words have *gi* as an immediate constituent.

Korea University's Korean Dictionary (2009/2012) has 370 headwords out of the 411 words. It shows their word structure in the way they are composed of morphemes. 296 words are formed by Old Chinese grammar, and 74 words Present-day Korean word formation, which includes word+suffix (52 words), word+word (11 words), word+root (1 words), root+word (3 words), root+suffix (3 words), prefix+word (3 words), prefix+suffix type (1 words).

Our elaborative investigation into the 411 words ending in *gi* as an immediate constituent results in that 317 words are formed by Old Chinese grammar, and 93 words by Present-day Korean word formation, which includes word+suffix (73 words), word+word (3 words), root+word (3 words), root+suffix (13 words), prefix+word type (1 words).

